최시형의 '양천주'사상 형성과정

임 태 홍*

머리말
제1장 1860년대 - 제1차 피신기간
제2장 1870년대 - 제2차 피신기간
제3장 1880년대 - 충청지역 포교시기
제4장 1890년대 - 제3차 피신기간
맺음말

머리말

이 글은 제2대 동학교주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의 '양천주(養天主)'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양천주' 사상은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 사상과 대비되는 최시형의 대표적인 종교사상이다. '시천주'라는 것은 '천주, 즉 최고신을 모신다'라는 개념이며, '양천주'라는 것은 '천주를 키운다', '천주를 양육한다'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양천주 사상은 최시형의 신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최시형의 양천주 신관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게 연구논문이 발표되어있다. 주요한 성과를 살펴보면서 이 논문에서 고찰할 문제를 제기해본다.

'양천주' 사상에 대한 비교적 빠른 연구는 그것이 범신관인지 유일신관이 심화된 것인지 하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동희와 신일철의 연구가 주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동희는 최시형이 1885년에 제시한 '이천식천(以天食天,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을 주목하여 최시형의 신관이 '범신관(汎神觀)'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만물을 섭리하는 유일신의 전능을 찬미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본다면 최시형은 교조 최시형의 가르침을 따라 유일신적인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입장으로 범신관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은 그의 일부 제자나 훗날의 지도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

이에 대하여 신일철은 최제우의 시천주신앙을 보다 철저히 세속화시켜 만물에는 천(天)이 내재하고 만물이 곧 천이라는 범신론적인 범천론(汎天論)에 도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최시형이 '양천주설'에서 최제우의 시천주사상을 확대해석하여 천주를 모실 뿐만 아니라 양(養)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천지만물에 까지 시천주를 보편화시켜서 범천론에 이르렀다고 하였다.[2)]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최시형의 신관은 '범신론적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듯하였다. 예를 들면, 이혁배도 1988년에 제출한 학위논문에서 최시형이 모든 인간, 모든 생물, 그리고 모든 사물을 하느님과 동일시하였다는 점에서 최시형의 신관을 범신관으로 보았다.[3)] 그러나 문영석은 최시형의 신관이 범천론적 신관으로 발전되었으나 역시 동시에 한울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으며, 표면상 범신관에 가까운 듯 보이면서도 전능한 유일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최시형은 범신관적 입장에서도 천주의 무한성을 강조하고 신의 섭리를 믿는 입장에 서있다고 파악하였다.[4)] 이러한 주장은 범신관인가 유일신관인가 하는 측면에서 본 최시형의 신관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시형의 신관과 관련하여 또 관심을 끈 것은 그의 신관이 초월적인가 내재적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혁배, 김용휘, 문용석 등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이혁배는 최시형이 '자신의 신관을 전개함에 있어 수운의 신관이 지닌 초월적 경향과 내재적 경향 중에서 전자의 경향을 배제시키고 후자의 경향만을 취하였다'[5)]고 보았다. 그리고 최시형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첫째는 동학

---

1) 최동희, 『동학사상의 조사연구』, 『아세아연구』 35, 1969, 66쪽.
2) 신일철, 「해월선생의 범천론적 동학사상(하)」, 『신인간』 430, 1985.7, 6-9쪽 참조. 혹은 신일철의 「최시형의 범천론적 동학사상」(『한국근대종교사상사』, 1984년)을 참조할 것.
3) 이혁배, 「천도교의 신관에 관한 연구」, 『종교학연구』 7, 1988, 28쪽.
4) 문영석, 「해월 최시형의 사상 연구 - 신관 · 인간관 · 자연관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 2002, 333-341쪽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서학(西學)의 오명을 벗어버리는 일이었으며 또 하나는 최시형이 학문을 연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론이 다소 감정적이었으며 논리적인 체계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의 기록에서 가끔 보이는 신의 인격적인이며 초월적인 모습은 그러한 엉성하면서도 소박한 이론 체계의 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6]

이와는 달리, 김용휘는 최시형의 천에 대한 개념은 초월성이나 인격성을 완전히 탈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천주'보다는 '양천주'를 더 강조하였다고 파악하였다.[7] 문용석도 최시형의 신관이 최제우 신관 보다 내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범천론적 신관으로 발전되었으나 역시 동시에 한울님을 인격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8] 이러한 견해는 최시형이 최제우 신관의 내재성만을 취하였다고 하는 이혁배의 주장과는 명백히 다르다.

사실 동학의 신관이 내재적인가, 초월적인가, 범신적인가, 유일신적인가, 인격신적인가, 비인격신적인가 하는 논의는 최제우, 최시형, 손병희에 이르는 동학교단의 신관을 고찰하는 가운데 무수히 많이 이루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양천주 사상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논의할 의도는 없다. 여기서는 양천주 사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양천주 사상이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양천주 사상은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과 대응되는 최시형의 독자적인 사상으로 학계에서는 널리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길명은 동학의 신관념이 '수운의 시천주사상'에서 '해월의 양천주사상'으로 그리고 '의암의 인내천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9] 그는 이보다 앞서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최시형은 시천주신앙을 철저히 세속화시켜 만물에 '천'이 내재하고 만물이 곧 '천'이라는 범신론적 범천론을 제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최제우의 시천주 개념을 양천주로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아울러 최시형이, 온갖 탐욕을 물리치고 도덕적 인격을 닦는 것

---

5) 이혁배, 「천도교의 신관에 관한 연구」, 25-26쪽.
6) 이혁배, 「천도교의 신관에 관한 연구」, 30-34쪽.
7) 김용휘, 「동학 신관의 재검토 - 수양론적 관점에서 본 신관」, 『동학학보』 9, 제9권1호, 2005, 349쪽.
8) 문영석, 「해월 최시형의 사상 연구 - 신관·인간관·자연관을 중심으로-」, 333-341쪽
9) 노길명, 「동학에서의 신 관념의 체계화 과정」, 고려대 『인문대논집』, 13호, 1995.12 참조.

은 자신의 몸에 모신 천주, 즉 한울님을 양(養)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해석하고, 동학의 신관은 모호하던 최제우의 '시천주' 신앙이 최시형에 이르러서는 '사인여천', '인즉천'의 범신론적 범천론으로, 그리고 천도교에 이르러서는 '인내천'의 천일합일(天人合一) 신인일체(神人一體)의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10]

필자도 동학 신관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동학신관을 최제우의 시천주, 최시형의 양천주, 손병희의 인내천으로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최시형의 양천주 사상은 최제우의 수양론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최제우의 '시천주' 수양론은 종교적인 체험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달리 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다소 불공평한 수양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면에 최시형의 양천주 수양론은 수양을 하면 한만큼 성과를 보고 누구나 쉽게 수양이 가능한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11] 종교적인 수양의 측면에서 '양천주'사상을 부각해본 것이다.

김용휘도 "수운(水雲, 최제우)에게 내유신령(內有神靈)은 내 몸에서 모시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었고, 마치 집 안에서 부모님을 받들듯이 모셔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해월(海月, 최시형)에게서 심령은 마치 종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시천주'보다 '양천주'를 더 강조한다. 본래 하늘로부터 받은 천심(天心)을 마치 열매의 종자처럼 잘 길러서, 그것이 자기 삶의 온전한 주체로 서게 하는 것이 '양천주'이다. 인간은 이제 하늘님을 기르는 존재가 된다"[12]고 하며 최시형의 양천주 사상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김용휘는 최시형의 동학사상은, 타력적 신앙에서 자력적 중심으로 수도의 중심이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 최시형에게 나타난 신관의 범신론적 경향을 곧바로 신관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고 단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리의 수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학인들의 수도의 경지가 깊어짐에 따라 시천주 사상의 심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동학인들의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최시형의 신관에는 인격신적인 일신(一神)이 섞여 있기 때문에 범신론으로 최시형의 신관을

---

10) 노길명, 「한국 신흥 종교 신관의 비교연구」, 『사목』 169, 1993.2, 72-74쪽.

11) 임태홍, 『동학 신관의 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7-48쪽 참조.

12) 김용휘, 「동학 신관의 재검토 - 수양론적 관점에서 본 신관」, 『동학학보』 9, 제9권 1호, 2005, 349쪽.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고, 수도의 단계 속에서 최시형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3]

최시형 사상에 있어서 양천주사상이 매우 중요하며 어느 경우에는 중심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양천주 사상은 동학교단의 종교적 수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그동안의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최시형의 양천주 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최시형의 종교사상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시형의 행적과 밀착시켜서 그의 사상 전체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고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최시형의 행적을 1860년대(제1차 피신기간), 1870년대(제2차 피신기간), 1880년대(충청지역 포교시기), 1890년대(제3차 피신기간) 등 모두 4단계로 나누고 시기별로 그의 행적과 사상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제1장 1860년대 - 제1차 피신기간

1864년 3월 동학교단을 세운 최제우가 처형당함으로써, 최시형은 자신의 신앙을 안내해줄 스승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경주를 떠나 영덕, 영해 등지로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때부터 대략 1869년까지를 제1차 피신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시형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

13) 김용휘, 「동학 신관의 재검토」, 350-351쪽 참조.

14) 연표는 주로 『도원기서』(1864년부터 1880년까지의 기록)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문덕사, 1991. 이 책은 신서원에서 2000년에 윤석산 주해, 수정판 『초기동학의 역사 - 도원기서』로 다시 출판되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이돈화의 『천도교 창건사』(1933년판, 『동학사상자료집』 2, 아세아문화사, 1979), 신인간 편집실의 「해월신사연보」(『신인간』, 1993.8), 박맹수의 『崔時亨 硏究 - 주요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85.11), 표영삼의 「해월신사연대기」(『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등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하 최시형의 연표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이들 자료를 참고한다. 참고로 『천도교 창건사』, 「해월신사연보」, 「해월신사연대기」 등 소위 천도교

연도(간지)	주요 사건 및 활동
1864년(갑자)	3월, 동학교조 최제우가 사망한 뒤, 영덕(盈德), 영해(寧海), 평해(平海) 등지로 피신함
1865년(을축)	영양(英陽)으로 피신. 7월 최제우 유족과 만남
1866년(병인)	3월, 최제우의 기일에 상주 사람들과 모여서 제사. 최제우 유족과 교인들을 돕기 시작함. 강수는 최제우의 조카 맹륜과 함께 용담에서 기일을 보냄. 10월, 최제우 생일에 강수, 박춘서 등과 함께 제사 지냄. 다음해부터 계를 시작하기로 함
1867년(정묘)	최제우 생일과 기일에 각각 4전씩을 내서 제사 지냄
1868년(무진)	영덕사람 김용여가 5백금을 내서 최제우 집안과 궁핍한 사람을 도움. 이때 계모임의 장은 강수의 아버지가 맡음
1869년(기사)	2월, 양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입도함. 3월, 박춘서와 함께 양양지역을 순방함. 이때 교인 수는 30여가에 못 미침

이 시기에 최시형은 최제우의 제사를 유족들과 함께 지내고,(1866년) 다른 교인들을 돕는데 참여하거나,(1868년) 최제우 생전시부터 교단내부에 잘 알려져 있던 강수를 만났으며,(1866년) 교인들과 함께 계를 시작하고,(1867년) 새로운 신도를 강원도 지역에서 얻게 되었다.(1869년)

그런데 일부 기록에 따르면 최시형이 이 기간 중에 교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알리는 강연, 즉 법설(法說)을 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 창건사』의 1865년 기록을 보면 그는 검곡에서 다음과 같은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 "사람은 하늘이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귀천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 제군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先師, 최제우)의 뜻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라"[15]

교단 측 자료는 최시형을, 최제우 당시부터 동학교단의 정통성을 확보한 유일한 후계자라고 보는 입장에서 정리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따르지 않았다.

15)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7쪽. 여기에 인용된 이돈화의 문장은 필자가 현대 한글의 표기법과 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인용한 것이다. 이하 『천도교 창건사』에서 인용한 글은 모두 이와 같음. '하늘은 사람이고, 사람은 하늘이다(天是人, 人是天)'라는 법설을 1897년에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侍天敎宗繹史』, 제2편 제12장 30장, 박맹수, 『최시형연구』 248쪽에서 재인용)

일부 학자들은 『천도교 창건사』의 이 기록이나, 『천도교서』(천도교중앙총부, 1920)의 기록을 근거로 1865년에 최시형이 이미 이러한 설법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한다.16) 그러나 박맹수는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피신 중에 이렇게 한가하게 강연이 가능하였겠는가하고 의문을 표시한다. 더구나 검곡은 최시형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관리들의 감시가 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박맹수는 이러한 기록을 '후대에 추가된'17) 것으로 판단하였다. 『천도교 창건사』 등 교단 측 자료는 최제우→최시형→손병희로 이어지는 교단의 도통전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단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입장에서 집필된 서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사실로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사실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최시형의 이러한 강연내용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사람은 하늘이다"라는 표현에서 하늘, 즉 천(天)은 동학교단에서는 대개 '천주(天主)'와 같은 의미로, 최고신을 나타낸다. 그러니 이 말은 '사람이 최고신 천주'라는 뜻이다. 최제우는 '천주'란 부모님을 모시듯 모시는 존재이며, 사람은 '천주'와 대등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제우가 사망하자마자 '사람이 천주'라는 내용의 교리를 최제우를 따르던 교인들에게 공공연하게 강연할 수 있었겠는가?

또 『천도교 창건사』 1867년 기록에는, "하늘을 기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여러분의 행위를 본 즉 잘난 체 하는 자가 많으니 가히 탄식할 일이다. 나도 또한 이 세상 사람이니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느냐만 내가 이를 하지 아니함은 하늘을 기르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18) 등의 내용이 최시형의 법설로 실려 있다.

---

16) 표영삼, 「해월최시형의 생애」, 『동학연구』 7, 30쪽; 표영삼, 「해월신사연대기」, 205쪽; 조성운, 「해월 최시형의 도통전수와 초기포교활동(1862-1875)」, 『동학연구』 7, 16쪽.

17) 박맹수, 『해월 최시형 연구 - 초기(1861-1871)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5, 81-82쪽 참조.

18) 동학경전(『최시형법설』)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 내 제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래서 생기니 슬픈 일이로다. 나도 또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마음을 감히 내지 않는 것은 한울님을 내 마음에 양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로다.(人是天 事人如天 吾見諸君 自尊者多矣 可嘆也 離道者自此而生 可痛也 吾亦有此心生則生也 不敢生此心也 天主不養吾心也 恐也)" 이 논문에서 인용한 동학경전의 최시형 관련 문장은 천도교 사이트(http://www.chondogyo.or.kr/)에 실린 '해월신사법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하늘을 기르다"라는 것은 '양천주(養天主)'라는 개념으로 전지전능한 최고신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다 만약에 최제우가 말하는 '모시는 존재로서의 천주'개념으로부터 본다면 이러한 '기르는 존재로서의 천주'는 전혀 다른 신의 개념이 된다. 이러한 신의 개념을 최시형이 1867년에 이미 제시했다고 보기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

만약 그가 당시에 최제우 사상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러한 사상을 최제우의 사상이라고 제시하였다면 그는 바로 이단으로 몰렸거나 교인들의 집단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다. 당시에 동학교인들은 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으로 슬픔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교인들은 최제우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최제우의 유족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최시형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을 것이다. 또 최시형 자신이 동학 교리를 충분히 소화하여 자신의 사상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동학 교리를 알고 종교적인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니었다.

최시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기에 교단 내에서 최제우에 필적할 만한 권위를 갖지 못했다. 심지어는 강수나 박춘서, 혹은 최제우 유족만큼의 권위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박맹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시형은 동학교도들 사이에서, 1871년 영해민란이 일어날 때 까지도 지도력을 확고하게 확립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1871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동학교도들을 이끌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19]

이외에도 최시형이 이 시기에 독자적인 자신의 종교사상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거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학에 입도한 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많아야 3년 정도임) 한문과 한글로 된 문장을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2) 최시형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문장을 통한 지식의 수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조 최제우가 사망한 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

19) 박맹수는 1861-1871 사이에 최시형의 사상이 독자적으로 전개 발전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박맹수, 『최시형 연구』, 61쪽; 박맹수, 『해월 최시형연구』, 80쪽.)

구축하여 곧바로 제시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이다.

3) 설사 그럴 능력이 있었더라도, 최제우 사망 자체가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을 정립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4) 당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제시보다는 몸을 숨겨서 생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5) 최시형이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였더라도 진지하게 들어줄 제자들이 많지 않았다. 특히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글을 아는 제자나 최제우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최시형이 최제우의 유족을 보살피며 제사지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 시기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이다. 그는, 천도교 측의 자료에 제시된 것과는 달리, 최제우 활동 당시에 교단 내에서의 위치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었다.[20]

최시형이 교인들을 돕는데 참여하고, 교인들과 계를 만들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동학교단 조직의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1869년에 최시형은 강원도 양양으로 가서 포교활동을 하였는데 교인들은 당시 30여가에 못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새로운 교인들이 최시형의 '연원(淵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원이란 동학에 입도하면 맺게 되는 전도자와 피전도자간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조직화되어 최제우 당시부터 동학교단에서는 교단의 기본조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교단내의 소속이라고 할 수 있다.[21]

최제우 사후에 최시형의 세력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약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강원도지역에서 최시형은 자신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천도교 창건사』에서 최시형의 사상으로 '사람이 하늘이다', '하늘을 기르다'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상들이 바로 최시형의 독자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상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적어도 저

---

20) 박맹수, 『해월 최시형연구』, 46-49쪽 참조.
21) 연원에 대해서는 박주현, 「연원제도의 유래와 정신맥락」, (『신인간』 615호, 2001.11)을 참조.

자인 이돈화는 이들 사상을 최시형의 종교 사상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여 최시형이 활동하기 시작한 초기의 행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사상을 최시형이 제시하기에는 아직 시간과 경험이 너무 부족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2장 1870년대 - 제2차 피신기간

1864년부터 1869년의 기간은 동학교단으로서는 무너진 교단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기간이었다. 최시형은 이때에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조금씩 권위를 확보해나가는 중이었다. 이 당시 최시형과 동학 교인들이 피신해 있던 곳은 주로 강원도 지역이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비밀스러운 포교를 통해서 조금씩 새로운 신도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871년에 소위 영해민란으로 불리는 이필제의 난이 일어나 교단은 다시 붕괴되고 교인들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부터 충청도 지역으로 교세를 넓혀가기 직전까지의 최시형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도(간지)	주요 사건 및 활동
1870년(경오)	10월, 양양의 도인들이 최제우 가족을 영월로 불러감. 영해지역의 교인들이 와서 이필제를 소개함
1871년(신미)	사람들이 이필제를 계속 소개하므로 영월에 가서 이필제를 만나봄. 3월에 이필제의 뜻을 따라 영월에서 거사를 함. 부인 손씨가 혼란한 사이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4월, 난의 실패로 성과 이름을 고치고 피신함. 5월, 강수와 재회. 강수와 호형호제하며 도원결의를 맺음. 8월, 이필제가 문경에서 또 난을 일으킴. 9월, 강수와 함께 태백산으로 들어가 숨음. 박용걸과 의형제를 맺음
1872년(임신)	3월, 최제우 장남 최세정이 관에 붙잡힘. 최시형, 강수와 함께 최제우의 남은 가족을 피신시킴. 5월, 최세정 사망. 10월, 적조암에서 수련함

1873년(계유)	1월, 전성문과 의형제를 맺음. 10월, 거처가 없어 사방을 떠돔. 12월, 최제우 부인 사망. 장례를 치루고 각지 교인들에게 부음 알림
1874년(갑술)	3월, 안동 김씨와 재혼함. 10월, 강연으로 생계를 잇던 강수가 최시형 집에 같이 기거
1875년(을해)	1월, 최제우 둘째 아들 세청이 병으로 사망. 이로써 최시형이 최제우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8월, 최시형, 강화(降話)의 가르침을 받아 제사의 방법을 새롭게 제정함. 9월, 강수 등과 함께 용담에 가서 최제우 조카 맹륜을 만남. 이어서 경주, 달성 등을 방문하였다. 10월, 설법을 계획하여 강수에게 정선으로 통문을 보내도록 함. 새롭게 복식을 갖추고 선도(仙道)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냄. 주요 교인들에게 '시(時)'자로 이름을 지어줌. 용시용활(用時用活)의 설법을 행함
1876년(무인)	7월, 강릉사람 유시헌 집에서 개접(開接)을 함. 행방불명되었던 손씨 부인과 재회
1879년(기묘)	11월, 강수(개명한 이름은 강시원)가 『최선생문집도원기서』를 완성하고 서문을 씀

이 기간 중에 최시형의 사상은 그다지 많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용시용활(用時用活)'의 사상이 이때 제시되었다.(1875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개 도는 때를 쓰고 활용하는데 있다. 때와 짝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이는 죽은 물건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 도는 5만년의 미래를 표적으로 삼음에 있어, 미리 때를 짓고 때를 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다. 그러므로 내 이 뜻을 후세 만대에 보이기 위하여 특별히 이름을 고쳐 맹세코자 한다."[22]

22) 이때 강수, 유인상의 이름을 각각 강시원, 유시헌으로 바꾸어 주었다.(오지영, 『동학사』, 대광문화사, 1984, 71쪽) 이때는 최제우의 제사를 지내는 자리였다. 제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용시용활(用時用活)의 설법을 행하고,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초헌(初獻, 도주인道主人 최시형), 아헌(亞獻, 도차주道次主 강수), 대축(大祝, 유인상)등 제관(祭官)을 나누어 정하였다. (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121-122쪽) 『도원기서』에서는 최제우가 죽은 후부터, 최시형을 '주인(主人)' 으로 칭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때부터 '도주인'의 자격으로 최제우의 제사를 맡게 되어, 제사를 지내는 제주(祭主)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름인 것 같다.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에는 현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5만년 미래를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때를 따라 순응한다'[23]는 뜻으로 시형(時亨)이라 바꾸고, 주위사람들에게도, "나에게 12개의 시(時)자와 활(活)자가 있다. 먼저 세 사람에게 '시'자로서 이름을 고쳐주고 '활'로서 자를 고쳐주겠다. 이 시, 활 두자는 명교(命敎)가 있는 것이니 공경하여 받도록 하라"[24]고 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최제우가 '시(時)'자를 사용하였을 때는, 「검결」에서 '시호시호(時呼時呼)'라고 하여 '때가 왔다! 때가 왔다!'고 하였다. 최제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시형은 '때를 잘 사용하라'고 하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용시용활'의 가르침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최제우가 신은 완전하며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최시형은 신의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때를 잘 보아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천주를 키워라'고 하는 양천주(養天主)사상의 싹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최시형은 기본적으로 동학교단이 종교적인 포교활동을 넘어서 성급히 사회적인 활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몹시 부정적이었다. 1871년의 신원운동당시, 이필제가 몇 차례 거사의 참가를 종용할 때, 최시형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필제가 계속 종용하자, "천만 가지 일이 빨리 하고자 하면 실패하는 것이라. 물러나 머물면서 가을에 일을 일으키는 것이 어떠한가?"하고 시기상조론을 편 바 있다.[25] 결국 이필제의 거사는 실패하고, 새로 구축해가던 교인들의 조직도 다시 무너지게 되었다. 최시형은 이러한 실패를 매우 중시하고 스스로도 항상 명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까지 바꾼 것이다.

1892년 7월에는 서병학, 서인주가 최시형을 찾아와, "지금 우리 도의 급선무가 선사(先師, 최제우)의 신원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을 때도, 최시형은 "아직 은인자중(隱忍自重)하라"고 하였는데,[26] 이것도 그의 '용시용활'의 정신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3)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115쪽.
24) 윤석산 역주, 『초기동학의 역사 - 도원기서』, 신서원, 2000, 237쪽.
25) 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80쪽.
26) 오지영, 『동학사』, 84쪽.

때를 기다리고, 때를 잘 살피고, 때에 알맞게 나가라는 '용시용활'의 사상은 갑작스러운 성취보다는 꾸준한 준비와 마음의 수양을 더 강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양천주' 사상의 기초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피신기간의 1870년대에 최시형은 '용시용활'의 사상을 제시한 것과 함께, 제사의 방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유시원의 집에서 개접(開接)을 하였으며, 동학교단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도원기서』를 완성케 하였다.

최시형의 이러한 적극적인 교단 정비사업 들은 어떠한 배경 하에서 가능하였을까?

사실 이 기간 중에 이필제의 난으로 동학의 주요 세력이 괴멸되었다. 말하자면 경상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동학의 주류파가 몰락하였다.[27] 그리고 최제우를 대신하여 교단의 상징적인 중심이었던 최제우의 유가족이 1872, 1873, 1875년에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써 최시형은 최제우와 유족들의 제사를 자기 책임 하에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또 강수와 같이 일부 인사는 최시형에 합류하여 최시형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도 최시형의 동학교단 내에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시형은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용담에 가서 최제우 조카 맹륜을 만나고, 경주와 달성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훨씬 강화하였다.

다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은 아직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앞서 소개한 '용시용활'의 사상은 아직 최제우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기간은 최제우의 사상에 좀 더 충실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80년과 1881년에 최제우가 남긴 문장이나 말들을 경전으로 찍어서 교인들에 돌린 사실에서 그러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이 당시의 동학 교단은 사실상 최시형, 강시원, 유시헌의 연합교단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시형이 1879년에 꾸었다는 다음의 꿈은 당시 최시형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 있다.

꿈에 최제우가 최시형을 불러 말하였다. "너 이리 오너라." 그래서 최시형은 즉시 대답하고 대(臺)에 올랐는데, 그 때에 다른 교인들도 있었는데, 모두

---

27) 박맹수에 따르면 1860년대 후반 경상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재건되고 있던 동학조직도 대부분 와해되었다고 한다. (박맹수, 「동학과 전통종교와의 교섭」, 『민족문화연구총서』 19, 1998, 155쪽 참조)

10여명에 이르렀다. 강시원, 유시헌도 같이 서서 공손히 절하였다. 그리고 최제우는 최시형을 북문에 임명하고 강시원을 남문에, 유시헌을 동문에 임명하고 또 한사람은 서문에 임명하였다.[28]

10여인의 교인들은 아마 최제우 당시에 임명된 16명의 접주들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최시형이 같이 절하게 한 강시헌, 유시헌은 최시형이 중심이 된 동학의 새로운 교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각각 동등하게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협력 관계였음을 나타낸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가 또 의형제를 맺고 이름도 '시(時)'자를 항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형·동생의 관계였다.[29] 최시형의 권위는 이때만 해도 아직 최제우만큼 독보적인 것은 못되었다.

제3장 1880년대 - 충청지역 포교시기

이필제의 난으로 강원도지역의 교인 조직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동학 교단의 포교 중심이 충청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80년대 들어 국내외 정세는 불안하게 되어, 1882년경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있어났다. 덕분에 동학을 탄압하던 조정의 감시가 잠시 누그러져, 교세가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30] 1880년대 최시형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간지)	주요 사건 및 활동
1880년(경진)	5월, 강원도 인제에서 동경대전 간행
1881년(신사)	6월, 강원도 단양에서 용담유사 간행
1882년(임오)	1월, 손병희 입도
1883년(계미)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 간행. 5월, 공주에서 동경대전 간행

28) 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131-134쪽; 『초기동학의 역사 - 도원기서』, 253-259쪽; 오지영, 『동학사』, 73-74쪽.

29) 최시형과 강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윤석산 역주, 『도원기서』, 91쪽.) 아울러 연표의 1871년 참조.

30) 이현희, 「경주인 해월 최시형 연구」, 475쪽.

1884년(갑신)	6월, 전라도 지방에 비밀포교. 10월, 손병희등과 공주에서 49일 기도, 육임제 정함. 이 해에 주문 '봉사상제일편심(奉事上帝一片心) 조화정만사지(造化定萬事知)' 만듬
1885년(을유)	5월, 보은 장내리로 이주. 6월, 강시원 등 체포당함.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이천식천설(以天食天說), 사인여천설(事人如天說) 설법
1887년(정해)	2월, 둘째부인 안동 김씨 사망. 3월, 육임소를 정함
1888년(무자)	1월, 전주 지역 순회. 3월, 손병희 여동생을 부인으로 맞이함. 11월, 경상도 금산군에 은거. 태아교육을 위한 내칙과 부인수도를 위한 내수도문을 반포
1889년(기축)	10월, 동학에 대한 탄압이 심해져 인제군, 간성군 등으로 피신
1890년(경인)	1월, 부인 손씨 득남. 7월, 강원도 지방 순회. 인제군 남면 성황거리 이명수 집에서 '새소리도 시천주 소리다'라는 설법을 행함

연표를 살펴보면 1880년대 초기에 동학 교인들은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동경대전』『용담유사』등 동학교단의 중요경전을 발행하였다. 경전을 발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교단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최시형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 기록이 많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천주직포설,(1885년) 이천식천설,(1885년) 사인여천설,(1885년) '새소리도 시천주 소리'라는 설법(1890)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새로 만든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육임제를 정하고,(1884년) 주문을 새로 만들고,(1884년) 육임소를 정하였으며(1887년) 내칙과 내수도문을 반포하였다.(888년)

최시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앞서 지적하였듯이 높아진 교단내의 위상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의 변화는 자신의 역량에 의한 새로운 신도의 확보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졌거나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최시형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란 이필제나 이필제를 따르던 교인들, 그리고 최제우 유가족이나 그들을 따르던 교인들, 그리고 경주지역 등지에 남아 있는,

연원이 다른 교인들을 들 수 있다. 최시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학교단내의 연원조직들이 이필제의 난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1880년대 최시형이 내세운 사상관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주문

1884년에 최시형은 새로운 주문을 제안하였다. '봉사상제일편심, 조화정만사지(奉事上帝一片心 造化定萬事知)'[31] 라는 주문으로 이전에 최제우 때 사용해오던 주문과는 몇 마디 문구가 달랐다. 그는 이러한 주문은 주위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였다.[32] 그러나 이러한 주문을 통해서 최시형의 신관과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33]

최시형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였다. 그리고 제지공장에 고용되어 2년간 직공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7살 경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오늘날 이장이나 면장에 해당하는 마을의 집강(執綱)을 맡기도 하였다.[34] 최시형은 글을 전혀 몰랐지만, 매우 부지런하고 경제적인 감각이 특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피난 시에도 나무를 심는다든가, 집신을 삼는다든가 하여 잠시도 쉬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울러, 『도원기서』나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그의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인원수나, 물건의 개수가 잘 나온다. 또한 『도원기서』에는 그가 동학교단에 제공하였거나, 각 교인들이 동학교단에 제공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의 경제적인 감각이 남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35]

한편 최제우는 비록 유학적인 소양은 갖추어져 있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

31) 『侍天敎歷史』, (『동학사상자료집』 3, 아세아문화사), 574쪽. '奉天上帝一片心 造化定萬事知'이라고 나온 자료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侍天敎歷史』의 기록을 따름.

32) 『侍天敎歷史』, 574쪽 : 圖避時人之目, 承命改呪文, 權行者也..

33) 이 주문은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侍天敎歷史』, 574쪽 : 圖避時人之目 承命改呪文 權行者也.) 그러나 영험이 있다고 믿어지는 13자 주문을 이러한 주문으로 바꾸어 외우게 한 것은, 이러한 주문도 효과가 있다고 최시형 자신이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34) 신인간 편집실, 「해월신사 연보」, 『신인간』, 1993.8; 이현희, 「경주인 해월 최시형 연구」, 『경주사학』 16, 1997, 464-465쪽 참조. 최시형이 집강을 하였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하는 연구도 있다. (박맹수, 『최시형연구-주요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32쪽 참조)

35) 오지영, 『동학사』, 59, 73쪽.

는 밝지 못하였다. 그는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주위사람들과도 많은 불화가 있었다. 그의 종교체험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다.

최제우는 자신이 겪은 체험을 교인들이 주문을 외움으로써 경험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최시형과 같이 현실적인 사람은 그러한 방법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최시형은 사실 최제우가 제시한 수도방법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다. 후에 그가 "수운선생 임종 시 내가 받은 바는 수심정기(守心正氣) 4자 뿐이다"[36]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강령의 체험을 통한 순간적인 깨달음보다는 수심정기, 즉 마음을 지키고 기를 바르게 하는 점진적인 수도생활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대변해준다.[37]

최시형이 1884년에 개작한 주문은 그러한 최시형의 입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소재다. 최시형은 교조 최제우가 제시한 주문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을 그렇게 바꾼 것이다. '천주'를 '상제'로 바꾸고, '시(侍)'를 '봉사(奉事)'로 바꾸었다. 천주는 서학의 초월적인 신을 강하게 암시하지만, 상제는 그러한 면보다는 전통적인 유학의 궁극적인 존재가 더 연상되는 말이다. '상제'는 '천주'보다 더 내재적인 신의 모습이 강하고 신의 초월성은 약한 개념이다.

최시형은 교조가 사용한 '시(侍)'[38]자를 '받들어 모신다'는 '봉사(奉事)'로 고쳤다. 모신다는 의미의 '시'란 사실은 무당의 신내림과 같은 강령의 체험을 통해서 신을 가까이 인식하라는 의미였다. 그것에 비하면 '봉사'는 수양의 면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최시형의 신은 강령을 받아서 모시는 신, 즉 천주(天主)가 아니라 부모를 섬기듯 '봉사'해야 하는 상제인 것이다.

최제우는 영기(靈氣)의 내림을 주요한 수양의 덕목으로 보고, 수심정기(守心正氣)라고 하는 방법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최시형은 수심정기의 방법

---

36) 오지영, 『동학사』, 58쪽. 최제우 임종 시 최시형은 그 자리에 없었다. (윤석산역, 『도원기서』, 58쪽.)

37) 최시형은 무당과 미신의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오지영, 『동학사』, 81쪽)

38) 최시형은 시자(侍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대신사(大神師)께서는 시자(侍字)를 해의(解義)할 때에 내유신령(內有神靈)이라 함은 한울을 이름이오, 외유기화(外有氣化)라함은 이천식천(以天食天)을 말한 것이니 지묘(至妙)한 천지(天地)의 묘법(妙法)이 도모지 기화(氣化)에 있나니라." 신의 영기(神靈) 자체를 신으로 보며, 기화(氣化)를 신이 자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작용으로 본 것이다.(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80쪽 참조.)

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새로운 주문은 지속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그 안에 내포된 수양관이나 신관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동학교단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최시형이 제시한 '봉사상제(奉事上帝)'의 개념은 최제우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도 하였다. 최제우는 처음에 주문만 외우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성경신(誠敬信)과 수심정기(守心正氣)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식이 있는 교인들에게 한문 문장을 내주고 거기에 댓구를 짓게 하였다.[39] 아울러 자신의 후계자는 가르침이 능할 것이라 하여, 글을 잘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를 많이 하였다.[40] 그것은 그러한 제자들만이 자신이 지은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등 어려운 한문 문장을 읽고 진정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일이 거울해서, 비야 흥야 하였으니, 범연 간과하지 말고, 숙독상미 하여서라. (중략) 이글 보고 저 글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 기연 살펴내어, 부야 흥야 비해 보면, 글도 역시 무궁이요 말도 역시 무궁이라"(『용담유사』 「흥비가」)라고 하여, 교인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깊은 의미를 찾아내어 스스로 체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교리는 최시형과 같이 글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동학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최제우의 동학이 갈수록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1862년 10월 최제우가 관아에 붙잡혀 있을 때, 그곳으로 몰려가 항의하였던 교인들이 5, 6백명에 불과하였다. 1871년 3월 이필제가 주동이 된 교조신원운동에서도 그 숫자는 5, 6백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숫자는 나중에 최시형이 전국적으로 확보한 수십, 수백만의 교세와 비교해보면 아주 적은 숫자로 최제우 동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시형은, 수양을 더욱 강조하고 신비적인 체험은 덜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최시형은 영기를 내리는 신 보다는 정성

---

39) 1863년경에 집필된 글들은 거의가 한문 투의 난해한 글들이었다.

40) 최제우는 체포 직전인 1863년 11월, 박하선에게, "작년에 나는 서북지역에서 영우(靈友)를 찾고자 했는데, 지금은 적합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일후에 반드시 나에 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완북 호서 지방에 있고 가르침에 능할 것이니 그대는 안심하고 그를 따르라"고 하였다.(「수운행록」, 김상기, 『동학과 동학난』, 한국일보사, 1975.)

껏 받들어 모시는 신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한 것이다.[41] 그럼으로써, 동학이 충청도와 전라도의 광범위한 지역에 동학이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는 교리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봉사상제(奉事上帝)'의 수양론은, 아울러 최제우 시대 동학의 교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즉 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인들은 강령주문을 외우고 영기의 내림을 통해서 신을 만나야 되는데, 강령이 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이다. 강령이 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었다. 신의 영기가, 수양도 부족하고 착하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내리는 경우다. 최제우는 '강령은 선한자 악한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42] 어떤 경우에는 집안의 머슴에게도 강령이 되어 그 머슴이 주인에게 호통을 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었다.[43] 반면에 강령주문을 열심히 외워도 강령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때는 동학의 진실한 가르침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최제우시기 동학 교리의 문제점이었다.[44]

강령체험을 중심에 둔 최제우 시기의 교리는 사실 마음을 수양한다든가 도덕을 함양한다든가하는 종교적 기능을 소홀히 한 것이었다. 물론 후기에 이르면 최제우도 그러한 면을 인식해서인지 수양의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강령체험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시형의 새로운 주문은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양을 하면 한 만큼 성과를 보게 되고 누구나 쉽게 수양이 가능하며, 신의 가르침도 받기 쉬운 합리적인 종교가 최시형의 새로운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는 나중에 최시형이 제시한 '양천주'의 교리로 정립되게 된다.

천주직포(天主織布)

1885년 최시형은 교인들과 청주 서택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 그 집에서 베 짜는 소리를 들었다. 주위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물어보니 사람이 베를 짜는

---

41) 최시형은 "우리 도를 각(覺)할 자는 호미를 들고 지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 속에서 많이 나오리라" 하였으며, "만사지(萬事知)는 오직 밥 한 그릇이라" 하였다. 또 "부한 사람과 귀한 사람과 글 잘하는 사람은 도를 통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오지영, 『동학사』, 58쪽)

42) 최제우, 「논학문」, 『동경대전』,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43) 『승정원일기』, 계해년, 12.20.

44) 최시형은 신이나 최제우를 만날 때에는 주로 꿈을 통해서 하였다.

소리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최시형은 사람이 아니라 천주가 베를 짜고 있는 소리라고 지적하였다.45)

최시형이 주문을 새로 만들고, '수심정기(守心正氣)'를 강조한 것은 신적인 존재와 만나기 위한 수양의 방법이었다면, 이 천주직포설은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일러주는 가르침이었다. 최제우는 신이 호천금궐에 있다고 하였으나, 최시형은 신이 그곳에 있지 않고 베를 짜는 곳, 즉 사람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천주직포설로만 본다면 베를 짜는 서택순의 부인이 신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바로 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나중에 '사람이 한울 즉 최고신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러한 사상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 같지는 않다.

이 당시 최시형의 천주직포설은 다음에 제시하는 「내수도문」의 문장이나 아주 후기에 등장하는 양천주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사람 자체가 신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를 인간의 내부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강하다. 즉 최제우의 신관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은 최고신을 모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1888년에 발표한 다음과 같은 「내수도문」의 문장을 살펴보자.

>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오니, 천리를 모르고 일행 아이를 치면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니 부디 집 안에 큰 소리를 내지 말고 화순하기만 힘쓰옵소서. 이같이 한울님을 공경하고 효성하오면 한울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나니, 부디 한울님을 극진히 공경하옵소서."46)
>
> "집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공경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노예를 자식같이 사랑하라."47)

---

45) 천도교경전, 『해월신사법설』에 소개된 천주직포설은 다음과 같다. "내가 청주를 지나다가 서택순의 집에서 그 며느리의 베짜는 소리를 듣고 서군에게 묻기를 「저 누가 베를 짜는 소리인가」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베를 짭니다」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인가」하니,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치 못하더라. 어찌 서군뿐이랴.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 (余過淸州徐 淳家 聞其子婦織布之聲 問徐君曰 「彼誰之織布之聲耶」 徐君對曰 「生之子婦織布也」 又問曰 「君之子婦織布 眞是君之子婦織布耶」 徐君不卞吾言矣 何獨徐君耶 道家人來 勿人來言 天主降臨言)."

46) 동학경전, 『해월신사법설』.

47) 『천도교 창건사』(1933년)에 따르면, 1888년 11월 경상도(金山郡 伏虎洞 金昌駿의 집)에서 각 포(包)에 보낸 내수도문(內修道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울님, 즉 최고신을 어린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치는 것은 그러한 최고신을 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이가 최고신이라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최고신이라면 그 최고신은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최고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로서의 아이가 언급된 것이다.

또 최시형은 집안 모든 사람을 최고신과 같이 공경하라고 하였다. 최고신으로 공경하라는 것은 아니다. 최고신과 같이 공경하면 그 최고신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주직포설'을 해석한다면 '인간은 바로 천주'라기 보다는 '인간은 천주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천식천(以天食天)

1885년 상주에서 천주직포설을 강연할 때 동시에, 최시형은 다음과 같은 '이천식천'도 강의하였다고 한다.[48]

> "대개 천지는 귀신의 조화라는 것은 유일한 지기(至氣)로 생긴 것이며 만물 역시 지기기 그렇게 한 바이니 이렇게 보면 어찌 사람만이 천주(天主)를 모셨겠는가? 천지만물이 '시천주' 아닌 것이 없으니 그럼으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천식천(以天食天)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물한가지라도 이유 없이 해치지 말라. 이는 천주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대자대비(大慈大悲)하여 조화(造化)의 길에 순응하라."

- 집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공경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노예를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우마육축(牛馬六蓄)을 학대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노하시나니라.
- 조석반미(朝夕飯米)를 낼 때에 한울님께 심고(心告)하라. 청결한 물을 길어 음식을 청결케 하라.
-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흘인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담(痰)이나 비즙(鼻汁)을 아모데나 토(吐)하지 말라. 만일 길이어든 반드시 묻으라. 그러면 한울님이 감응하시나니라.
- 일체(一切) 모든 사람을 한울로 인정하라. 손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셧다 하고 어린 아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치는 것이니라.
- 잉태(孕胎)가 잇거든 몸을 더욱 조심하되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라. 모든 일에 태아를 위하야 조심하라.
- 다른 사람을 시비하지 말라. 이는 한울을 시비하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라 다만 근면(勤勉)하라.

48)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126쪽.

천지만물은 최고신인 천주를 모시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물건을 먹는 것은 천주를 먹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도 만물은 천주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역시 천주를 모시는 존재로서의 만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천도교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천식천의 설법이 소개되어 있다.

> "내 항상 말할 때에 물건마다 한울이요 일마다 한울이라 하였나니, 만약 이 이치를 옳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물건이 다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 아님이 없을지니,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이치에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말이요, 만일 한울 전체로 본다면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하여 같은 바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함을 이루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으로써 서로 기운이 화함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이하 생략)"[49]

물건마다 한울, 일마다 한울이라고 설명하고 한울이 한울을 먹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 문장 뒤에 최시형은 "대신사께서 모실 시자의 뜻을 풀어 밝히실 때에 안에 신령이 있다함은 한울을 이름이요, 밖에 기화가 있다함은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여, 사물 안에 신령이 있다는 의미로 최제우가 '시(侍)'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사물이나 인간 안에 최고신이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이 내부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신이라는 논리이다.

아울러 그는 신이 신을 서로 잡아먹는다는 것은 신이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종류가 같은 새들은 서로 돕게 하여 그 세계를 보존하게 하고, 종류가 다른 새들은 서로 잡아먹게 하여 신은 스스로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50]

---

49) 경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내 恒常 말할 때에 物物天이요 事事天이라 하였나니, 萬若 이 理致를 是認한다 면 物物이 다 以天食天아님이 없을지니, 以天食天은 어찌 생각하면 理에 相合치 않음 과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人心의 偏見으로 보는 말이요, 萬一 한울 全體로 본다하면 한울이 한울 全體을 키우기 爲하여 同質이 된 자는 相互扶助로써 서로 氣化를 이루게 하고, 異質이 된 者는 以天食天으로써 서로 氣化를 通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 울은 一面에서 同質的氣化로 種屬을 養케하고 一面에서 異質的氣化로써 種屬과 種屬 의 連帶的 成長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니, 總히 말하면 以天食天은 곧 한울의 氣化作用 으로 볼 수 있는데, 大神師께서 侍字를 解義할 때에 內有神靈이라 함은 한울을 이름이요, 外有氣化라 함은 以天食天을 말한 것이니 至妙한 天地의 妙法이 도무지 氣化에 있느니라."

사인여천(事人如天)

천주직포설과 같은 해(1885년)에 설법을 행한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은 인간을 하늘과 같은 존재로 섬기라는 의미이다. 최시형은 "내가 꿈엔들 어찌 잊을 것인가. 선생님이 일찍이 남긴 가르침이 있는바, '사람은 한울이니라. 그럼으로 사람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하셨다."[51]고 하여 '사람은 한울이므로 사람 섬기기를 한울처럼 하라'는 사상을 펼쳤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최제우가 남긴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 이는 최제우의 사상과 다소 거리가 있다.

최제우는 사람이 최고신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사람을 신으로까지 보는 사상은 분명히 최시형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람 섬기기를 한울처럼 하라"는 부연 설명을 보면 여기에서도 '사람은 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라는 개념 쪽이 더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내부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과 같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되는 것이다. 최시형이 설파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 존중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신관, 즉 모든 사물 내부에 신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새소리도 시천주의 소리

1890년에 최시형은 인제군의 이명수 집 뜰에서 나무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였다.

> "저 역시 시천주의 소리이니라. 묘하다 천도(天道)의 영묘함이 일에 간섭치 아니함이 없구나. 위로는 일월의 큼과 밑으로는 미물의 작음이 모두 천도의 영광이다."[52]

새가 짓는 소리를 '시천주의 소리' 즉 천주를 모시는 소리라고 정의한 것이다. 새의 지저귐도 사람이 천주를 모시기 위해서 외우는 주문과 같다. '양천

---

50)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79-80쪽 : "한울이 한울 전체를 키우기 위하야 同質이 된 자는 상호부조로써 서로 氣化를 이르게 하고 異質이 된자는 以天食天으로써 서로 氣化를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럼으로 한울은 일면에서 同質的 氣化로 종속을 養케하고 일면에서 異質的 氣化로써 종속과 종속의 연대적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 總이 말하면 이천식천은 곳 한울의 氣化作用으로 볼 수 있는데.."

51)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37-38쪽.

52)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131쪽.

주'의 관념에서 설명한다면, 새가 신을 모신다면, 새도 신의 씨앗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약 큰새가 작은 새를 잡아먹는다면, 그것은 신이 신을 잡아먹는다는 논리로 발전될 수 있다. 최시형은 이것을 앞서 소개한 '이천식천(以天食天)'이라는 법설로 정리한 것이다.

최시형의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에 전부 존재하는 신이다. 최제우가 유일한 존재로서 천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신은, 이제 무수히 많고 작은 존재로 변하여 생명계의 모든 곳에 흩어지게 되었다.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최제우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를 장생케 하고 천하에 덕을 펴게 하겠다"라고 하던 신은, 이제 아주 미세한 존재가 되었다. 결국 인간의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기다리는 신, 즉 '양천주'의 신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제4장 1890년대 - 제3차 피신기간

충청지역에서 포교가 활성화되면서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도 신도가 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80년대 후반에는 전라도지역 신도가 급증했다. 1892년경에 동학세력은 황해도까지 퍼져 나갔는데 전국적으로 수십만에 이르렀다.[53] 특히 1890년대 들어서는 전라도 지역이 충청도 지역을 압도하면서 결국 이필제 난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전봉준의 난이 발발한 것이다.

최시형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동학운동 기간 내내 그는 북접법헌(北接法軒)으로 자처하고, 1887년에 동학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북접법헌을 용담연원(龍譚淵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전봉준 세력으로 부터 거리를 두어, 동학교단 전체에 미칠지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54]

---

53) 이현희, 「경주인 해월 최시형 연구」, 『경주사학』 16, 1997, 476쪽 참조.

54) 당시 북접의 고위 간부였던 서병학은 선무사 어윤중에게 "호남의 동학당들은 몹시 수상하니 옥석을 분간해 달라"면서 북접과 남접을 동일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북접은 보은 장내리에서 신원운동을 하던 때에도 소극적이었으며 타협적인 노선을 견지하였다.(김의환, 「1982 · 3년의 동학 농민운동과 그 성격」,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신서13, 1984, 502쪽) 황현(黃玹)의 『오하기문(梧下記聞)』에 의하면, '初, 東學包號其黨曰布, 有法布徐布, 法布宗時亨,時亨號法軒故也, 徐布宗徐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운동은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거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동학교단으로서는 또 하나의 교난(敎難)이었다. 동학교단은 다시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최시형 주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간지)	주요 사건 및 활동
1891년(신묘)	5월, 호남 순회. 남계천을 전라좌우도 편의장으로 임명. 10월, 갱정포태설(更定胞胎說) 설법
1892년(임진)	7월, 서병학과 서인주가 신원운동 제의. 10월, 서병학 등, 공주에서 신원 제소. 도인을 전주 삼례에 모이게 함. 12월, 보은 장내리에 신원 도소 마련
1893년(계사)	2월, 광화문 앞에서 신원 상소. 3월, 보은 장내리에 신도 집합시킴. 척왜양창의 깃발 세우고 항의. 대접주제, 포제를 창시
1894년(갑오)	3월, 전봉준이 고부(古阜)에서 봉기. 9월, 동학군 항일투쟁. 남북접 협력. 11월, 동학혁명 실패
1896년(병신)	1월, 손병희, 손천민, 김연국에게 도호내리고 경통에 연서하도록 함
1897년(정유)	2월, 평안도에서 교세 날로 퍼짐. 4월, 향아설위(向我設位), 삼경설(三敬說), 양천주(養天主) 설법
1898년(무술)	4월, 원주에서 체포당함. 6월, 처형됨

1891년부터 동학교단은 적극적인 교도, 조직정비, 신원운동 등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폭발로 이어져 1894년의 동학혁명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은 최시형으로서는 이필제 난과 거의 동일한 수순을

璋玉, ...而約以徐布先起, 法布後起, 故徐布亦名起布, 法布歷名坐布, 及奉準等起, 皆徐布也', '是時法布者, 稱隱居修道, 故不起, 起者 惟徐布也'라고 하여 북접의 법포(法布)와 남접의 서포(徐布)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최시형 측인 북접에서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최시형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직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에게 편지를 보내, 서장옥 등 남접이 자기들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알리기도 하였다.(『시천교역사』, 625-626쪽. "致書于忠州駐紮日兵站 聲明全琫準之不規"). 북접과 남접에 관해서는 또 이이화의 「인간과 신의 차이 - 최시형의 역사적 재평가」(『역사비평』봄호, 1988) 263, 266-270쪽 참조.

밟아 일어나 또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 55)그동안의 조직이 와해되고 심각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달픈 피신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결국 동학운동이 일어 난지 4년 만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는 처형되기 전해에 향아설위(向我設位), 삼경설(三敬說), 양천주(養天主) 설법을 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아설위(向我設位)

최시형은 제사를 지낼 때는 자신을 향해서 위패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56) 이러한 설법에 대해서 제자가 왜 그런지 물었다. 이에 대해서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 만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57)라고 대답하였다.

최시형이 제시한 이러한 제사법은 그러한 나의 몸 안에 조상들의 혈기와 심령 및 정신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인식에서 발전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최고신이 낳은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 "이십대나 삼십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첫 조상이 있으리니 첫 조상의 영은 받들지 않느냐. 사람은 다 부모가 있으리니 부모로부터 처음 할아버지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첫 할아버지는 누가 능히 낳았겠느냐. 예로부터 한울이 만백성을 낳았다 말하나니, 첫 할아버지의 부모는 한울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한울을 모시고 한울을 받드는 것은 곧 첫 할아버지를 받드는 것이니 부모의 제사를 지낼 때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며, 시간은 정오에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58)

---

55) 신영우, 「1894년 해월 최시형의 행적」, 『충북사학』 11 · 12, 2000, 409-410쪽 참조.

56) 천도교 경전, 『해월신사법설』: "自此以後 向我設位可也"; 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166-167쪽 참조.

57) 천도교경전,『해월신사법설』: "我之父母 自始祖以至於幾萬代 繼承血氣而至我也 又父母之心靈 自天主幾萬代繼承而至我也 父母之死後血氣 存遺於我也 心靈與精神 存遺於我也 故奉祀設位爲其子孫而本位也 平時食事樣 設位以後 致極誠心告 父母生存時敎訓 遺業之情 思而誓之可也."

이러한 논리는 결국 내 안에 한울, 즉 최고신의 혈기와 심령 및 정신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으로 인간이나 모든 사물은 최고신을 내포한 존재라고 하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향아설위'의 사상은 두 가지 점에서 명백히 최제우 사상과 구분된다.

첫째는 인간은 원래부터 최고신을 자신의 내부에 모시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시천주'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따로 필요 없다. 둘째 최고신인 한울님에게 제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제우는 수시로 음식물을 준비해서 산에 올라가 한울님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 인간 자신에게 제사를 올리라는 '향아설위'의 가르침은 교조 최제우의 가르침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법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최시형의 권위가 이미 교단 내에서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향아설위의 설법은 바로 최시형의 확고한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경설(三敬說)

최시형은 1897년에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설(三敬說)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59)

> "사람은 첫째, 하늘을 공경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다. 하늘을 공경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 하면 하늘은 진리의 중심을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을 공경함은 결코 빈 공중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하늘을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다."60)
>
> "둘째는 사람을 공경함이니 하늘을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를 닦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되 하늘과 같이 한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도를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교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하지 말고 하늘이 강림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

58) 천도교경전,『해월신사법설』: "遡及於二十代或三十代則 必有始祖矣 始祖之靈 不奉乎 人皆有父母矣 自父母而遡及於始祖則 始祖孰能産耶 自古以來 天生萬民云 始祖之父母 是天主也 是故 侍天奉天卽奉始祖也 父母奉祀之時 致以極誠而可當也 時間午正以施爲可也."

59) 이돈화,『천도교 창건사』, 167-168쪽 참고.

60) 천도교 경전,『해월신사법설』.

어리석은 풍속에 귀신을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은 천대하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 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하늘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갈을 구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61]

"셋째는 물건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는 것이다."[62]

이러한 삼경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이다. 하늘, 즉 최고신을 공경하는 것은 공중의 상제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다.(「경천」) 혹은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하늘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등의 사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상은 사실 교조 최제우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충돌될 수 있는 사상이다. 공중의 상제를 공경한 것은 바로 스승 최제우였으며, 귀신을 공경하고 최고신과 사람을 서로 독립된 존재로 인식했던 것도 최제우였기 때문이다.

삼경설도 앞서 살펴본 '향아설위'의 사상처럼 최제우의 사상으로부터 상당히 변화, 발전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조 최제우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상이 된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양천주의 사상도 마찬가지다.

양천주(養天主)

최시형의 사상이, 동학 교조 최제우의 사상과 비교하여 가장 독창적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양천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제우의 사상이 '시천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최시형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양천주'의 사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양(養)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을 모실 줄 아는 것이다. 하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마치 종자의 생명이 종자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의하여 하늘을 기르는 것이다. 같은 사람으로도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종자를 물속에 던져 그 생명을 멸망케 함과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한 평생을 마치도록 하늘을 모르고 살 수 있다. 오직 하늘을 기른 사람에게 하늘이 있고, 기르지 않는 사

61) 천도교 경전, 『해월신사법설』.
62) 천도교 경전, 『해월신사법설』.

람에게는 하늘이 없다."

하늘(天)이라고 하는 최고신은 사람이 기르는 것이다. 최고신은 인간에 마음속에 종자로서 존재하는데 인간이 그 최고신의 종자를 잘 길러내면 최고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르지 못하면 최고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신에 대한 해석은 최제우의 시천주 신관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최제우가 설파한 최고신은 인간의 양육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늘에서 존재하는 신이다. 그러나 최시형은 신이 자기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식물의 생명이 종자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 종자를 키우는 것과 같이 사람은 신을 키움으로써 신이라고 하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초월적인 존재를 자기 마음 가운데서 키운다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여 키우는 것이 동학의 도(道)이며,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동학인 것이다. 최제우가 묘사한 "공중에서 웨치는"(『안심가』) 초월적인 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이제는 인간의 내부에서 자라나는 신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최시형의 양천주의 개념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포제(包制)의 '포(包)'라는 글자다. 1893년에 최시형은 갑자기 늘어나는 신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접주제와 포제를 만들었는데, '포'란 교단내의 조직으로, 최제우가 만든 접(接)과 유사한 의미다. 당시 강원도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교세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동학교단에서는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존의 접주가 통할하는 '접'의 상위에 '포'를 둔 것이다.[63] '포'는 교구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조직으로 같은 지역 내에 여러 접주들이 교인들을 관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다.[64] 접과 포는 이렇게 조직의 단위 명칭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포'와 '접'이라는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접(接)이라는 것은 접신(接神)이라는 용어처럼 어떤 존재와 접촉하다라는 뜻으로 나와는 다른 어떤 다른 객체가 상정된 말이다.[65] 그러나 포(包)는 어떤

---

63) 이진구, 「천도교교단조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종교학연구』, 1991, 74쪽. '포(包)'를 도입한 새로운 조직정비를 1882년에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박영학, 「동학통문에 관한 고찰」, 『해월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259쪽)

64) 박영학, 「동학통문에 관한 고찰」, 259-260쪽 참조

65) 조선시대 서당에서 '접'이란 동급의 학생 그룹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개접례(開接禮), 거접(居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최제우가 그러한 용례에서 동학의 '접'을 창안하였을 가능성이 박맹수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박맹

존재를 간직하다, 감싸다라는 의미이다. 전자가 최제우의 초월적인 신의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후자는 최시형의 내재적인 신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최제우가 자신의 교단 조직을 처음 만들 때 사용했던 글자로 접(接)을 선택한 것처럼, 최시형은 자신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창안해낸 말은 바로 이 포(包)였다. 접주제와 포제의 각기 다른 글자는 바로 두 사람의 신관 즉, 시천주와 양천주의 신관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제우의 신은 하늘에서 영기를 내리는 신이었다. 그 신은 아무에게나 영기를 내리는 신은 아니다. 그러나 최시형의 신은 모든 인간이 원래부터 다 갖추고 있는 신이다. 인간은 그러한 신을 키워야 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신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신적인 존재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수많은 농민이 참여하면서 전라도, 충청도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충청도와 전라도에 퍼진 동학은 사실 최시형의 동학사상이 중심이 된 것이고 그들 동학교도들은 최제우 보다는 최시형의 가르침을 더 직접적으로 받은 교인들이다.[66] 최시형은 동학교단이 단기적으로 정치세력과 대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르친 인간존중의 교리는 언제든지 민권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었다.[67]

전봉준이 내세웠던 '집강소 개혁안'등 많은 개혁의 주장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근본 원리에서는 바로 이러한 최시형의 가르침이었다고 볼 수 있다.[68] 비록 20만 명 이상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 중에 목숨을 잃었지만, 1897년 동학은 다시 평안도 지역으로 급격히 교세가 늘어 가고, 신도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제우가 세웠던 동학 자체의 매력과 당시 시대의 상황에도 그 원

수, 『최시형 연구』, 88쪽.)

66) 전봉준은 동학교도가 아니며, 동학교단이나 동학사상이 동학농민운동에 기여 한 바가 거의 없다는 견해도 있다.(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평민사, 1985.8, 164쪽) 그러나 김창수는 그것이 근거 없음을 지적하고, 전봉준은 분명한 동학 접주라고 주장하였다.(김창수, 「동학혁명운동과 동학교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 1989)

67) 최시형이 1891년 남계천을 전라좌우도 편의장(便義長)에 임명하면서, 거기에 불만을 갖은 김락삼(金洛三)에게 "들으라 大神師 같으되 吾道는 후천개벽이오, 更定胞胎之運이라 하였으니, 先天에 썩어진 문벌의 高下와 貴賤의 등분이 무슨 관계가 잇느냐"고 한 말은 인간존중의 관념이 문벌타파의 주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돈화, 『천도교 창건사』, 134쪽.)

68) 성주현, 「해월 최시형과 동학혁명」, 『문명연지』제4권3호, 2003, 8-13쪽 참조.

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시형의 동학사상이 당시 민중을 사로잡는 인간존중과 평등의 이념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교조 최제우에게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었다. 최제우시기에는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오히려 강했으나 최시형 때에 이르러서는 민주와 민권의 영역까지 발전되어 간 것이다. 그러한 사상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최시형의 양천주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지역은 이전에 최제우가 포교를 한 적이 있던 지역이었다. 1861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피신해 있으면서 남원을 중심으로 비밀리 포교를 하였던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제우로부터 직접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배운 교인들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최시형의 권위가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난으로 전라도 지역의 동학 세력은 몰락하고 조직이 와해되었다.[69] 다시 동학교단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색의 중심은 역시 최시형이었다.

최시형의 위상을 이로써 한층 더 굳건해져 동학을 처음 창시한 최제우와 견줄 정도가 되었다. 이때의 최시형은 더 이상 최제우의 권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을 동학교단내에서 발휘할 수 있었다. 위에 제시한 최시형의 여러 가지 사상은 바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나온 것이다.

최시형이 왜 이 시기에 새삼스럽게 '양천주'라고 하는 사상을 제시하였을까? 물론 그의 사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의 사상으로 다시 제시한 것은 동학교단이 다시 새로운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로 제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심스럽게 교단을 다시 키워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러한 양천주의 법설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맺음말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천주'와 제1대 교주 최제우의 대표적인 사상인 '시천주'는 그 의미가 서로 매우 대립적이다. 전자는 신을 기른다, 신을 키운다는 뜻이며 후자는 신을 모신다는 뜻

69) 이진구, 「천도교교단조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78쪽 참조.

이다.

모신다는 말은 어른이나 노인 등 연장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양육한다, 키운다 또는 기른다라는 말은 대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다.

필자는 최근까지, 최시형 사상의 핵심인 '양천주'의 사상이 비교적 초기에 형성되고 그러한 사상이 바탕이 되어 최시형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파생되어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최제우의 경우, 맨 처음 '시천주'의 사상이 형성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사상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라는 주문은 동학이라는 종교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이미 형성된, 아주 초기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천도교 창건사』, 『천도교서』등 적지 않은 자료가 최시형의 양천주 사상을 비교적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천주'라는 사상은 '천주, 즉 최고신을 양육한다'라는 의미와 같이 기르고, 양육하는 '수양'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최시형의 종교 활동 자체가 갑작스런 깨달음에 중심을 두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을 중시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양천주'라는 사상 자체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색과 경험의 축척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아울러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최시형은 최제우가 사망한 직후부터 바로 교단 내에서 권위를 확립하여 동학교단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다. 동학교단내에서의 권위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주위상황의 우호적인 변화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교단 내에서 카리스마를 확보하지 못한 후계자가 과연 새로운 교리나 사상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 설사 최시형이 최제우로부터 제2대 교주로서 강력한 권위를 공개적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제우가 관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교인들도 관리들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교리를 제시하였다면 과연 동학 교인들이 그를 따랐을까? 당시, 적어도 1860년대 후반과 1870년대 전반에 최시형을 따른 사람들은 최시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최제우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었다.

결국 본문에서 필자는, 최시형의 다양한 사상이 먼저 형성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양천주'라는 새로운 종교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주로 『도원기서』와 『천도교 창건사

』의 일부 기록을 참고하여, 용시용활설 → 새로운 주문 → 천주직포설 → 이천식천설 → 사인여천설 → 새소리도 시천주 설 → 향아설위설 → 삼경설 → 양천주설 등의 흐름으로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용시용활설은 1870년대의 사상, 새로운 주문, 천주직포설, 이천식천설, 사인여천설, 새소리도 시천주 설은 1880년대의 사상, 향아설위설, 삼경설, 양천주설은 1890년대의 사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들은 최시형이 제1대 교주인 최제우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츰차츰 사상적인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시형의 사상은 시기가 앞으로 갈수록 최제우의 사상에 가깝고 뒤로 갈수록 독자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최시형은 1890년대, 즉 자신의 종교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마도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도 있었다. 그가 제시해온 여러 가지 사상을 보면 그러한 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많다. 그러나 그가 최후의 시기에 남긴 법설은 최고신을 양육하라는 '양천주'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상을 '양천주'의 사상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자신의 인생과 동학교단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가 바로 '양천주'의 역사였다고 하는 결론으로서의 양천주사상이다. 동학교단을 조심스럽게 키워서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시켜낸 경험이 농축된 표현이었다.

둘째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다시 커다란 위기에 처한 동학교단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교훈으로서의 양천주 사상이다. 즉 이는 그가 제자들에게 설파한 '용시용활'의 의미와 같이 앞으로 5000년을 기다리면서 다시 새롭게 힘을 키워내라고 하는 교훈이다.

셋째, 동학의 최고신, 즉 한울님은 아직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고신에게 의존하지 말고 아직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충고가 내포된 사상으로서의 양천주 사상이다.

지금까지 최시형의 사상과 관련한 연구는 최시형의 사상적인 특색이나 사상의 내용을 고찰한 것은 많았지만 최시형의 사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었다. 이것은 최시형과 관련된 자료들, 특히 그의 행적에 관련된 자료들에 불명확한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

학·천도교 교단 측의 자료는 최시형을 너무 미화시킨 나머지 초기부터 최시형이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단 내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사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최시형의 동학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Study on the Formation of Choe Sihyeong's Thought : Focused on the Idea of Bringing up God

Lim, Tai-hong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of Choe Sihyeong's thought, especially focuses on the ideas of bringing up God, "yangcheonju"(養天主). The writer firstly attempts to explain the various religious ideas of Choe Sihyeong(崔時亨), the second priest of Donghak, such as "yongsiyonghual" (用時用活, making the good use of time), "yichunsikchun"(以天食天, god's eating god), "sainyochun"(事人如天, treating everyone as god), "samgyung" (三敬, paying respects to god, man and things), "hyangasulwee"(向我設位, setting up an altar toward self), and so on. These ideas were formed before the "yangcheonju"(養天主) thought was appeared.

In the paper, the writer arranges Choe Sihyeong's religious thoughts by the time announced by Choe according to the Donghak documents. And this paper attempts to classify the Choe's thoughts by a definite period of time. Choe Sihyeong's religious ideas have the feature that in the earlier times those are generally near to the thoughts of Choe Jewoo(崔濟愚), the founder of Donghak, but in the last period of his lifetime Choi Sihyeong's thoughts shows the originality.

Key Words: Choe Sihyeong, Haewol, Yangcheonju, Bringing up God, Dong-hak, Thought of Dong-hak, Formation of Thought